

공동체 소식



연중 제15주일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은 '연중 제15주일'입니다.

본당 평신도사도직 협의회 7월 정기회의

- 일시: 다음 주일(7/15) 교중미사 후.
- 장소: 나자렛 교육관.

본당 4구역 구역모임은 하절기 동안 쉽니다.

오마하 ME주말 교육 안내

- 일시: 9월 15-16일, 1박2일(토, 일)
- 장소: 오마하 성당, 참가신청은 별도의 문의바랍니다.

주일미사 참례와 교무금 납부는 신앙생활의 의무입니다.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s Call to Share'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 나눔을 위한 모금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RESPONDING(https://www.calltoshare.org/)

전례 성가

Table with 5 columns: Day, Start, Example, Church, and Parish. Rows for Golden Week and Car Week.

주일미사 복사

Table with 3 columns: Day, Homilist, and Reader. Rows for Golden Week and Car Week.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Table with 3 columns: Day, Reader, and Lectionary. Rows for Golden Week and Car Week.

애찬 봉사자

Table with 2 columns: Day and Name. Rows for Golden Week and Car Week.

헌금 봉사자

Table with 2 columns: Day and Name. Rows for Golden Week and Car Week.

+미사시간

주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wan.jo@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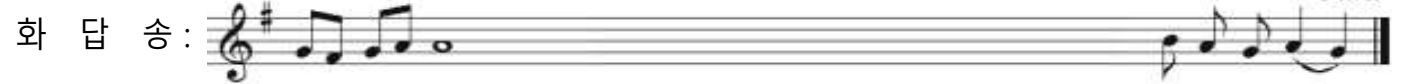
오늘은 연중 제15주일입니다. 성자께서는 사랑의 신비와 인간의 존엄을 밝혀 주십니다. 우리가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매여, 성령으로 가득 차, 믿음과 실천으로 형제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굳은 믿음을 청합니다.

그림 묵상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누어 주시고 둘씩 짝을 지어 파견하십니다.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파견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가난을 키우고, 또 온전히 자신을 비울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험난한 길일지라도 가능키 어려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제 1 독서 :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7,12-15
<가서 내 백성에게 예언하여라.>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1,3-14
<하느님께서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7-13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생명의 말씀 **길을 떠날 때, 아무 것도 가져가지 말라**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최후 만찬 때에 몸소 허리를 굽혀 그들의 더러운 발을 다정스레 씻어주십니다. 이 부분을 묘사하며 요한 복음은,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요한 13,1)고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사랑 가득한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라고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 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신 제자들이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한 것인지 예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마태 10,16)라며 세상에 파견되는 당신 제자들에 대한 깊은 염려를 드러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염려스럽다면, 오히려 그들이 길을 떠나기 전에 이것저것 꼼꼼하게 짐을 챙겨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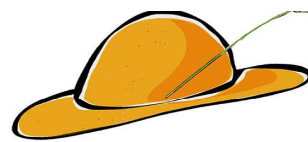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조카가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친구가 문밖을 나갈 때면, 형수님과 형님은 유모차부터 해서 기저귀와 여벌 옷, 이유식과 간식 등 온갖 짐을 바리바리 챙기곤 하더군요. 하지만 커다란 가방에 빈틈없이 들어찬 이 무거운 짐을 조카에게 내밀며 “이건 네 짐이니깐 네가 들어!”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꼼꼼하게 짐을 챙겨 들고 다니는 것은 형님과 형수님의 몫이고, 어린 조카는 그저 사랑스러운 웃음을 흘리며 해맑게 발걸음을 옮길 뿐입니다. 문밖을 나서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식량도 여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는 매정함의 발로가 아니라 오히려 지극한 사랑의 돌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네가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마련해줄 테니 걱정 말렴!”하고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누구보다 사랑했던 제자들을 파견하는 길입니다.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마음이 짠한데, 마치 유배 보내듯 빈털터리로 내쫓을 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떠나라 하심은,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함께하시며 다 마련하실 터이니, 너희는 그저 그 분을 믿고 복음 선포에 전념하여라”라는 말씀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갖가지 현실적인 염려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겠지만, 온갖 걱정과 파문혀 불안해하며 하느님을 잊고 지낼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아버지 하느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지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루카 12,29,31)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머무르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규하 다니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주님!
원망치 않게 하소서.
당신께서 뿌리시고 당신께서 길러주신 것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하여

주님,
당신을 원망치 않게 하시고
겸손히 기도하게 하소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마르 6,11)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사랑의 슬픔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 둘 중, 한 친구의 이름은 배두였고, 세례명은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셋은 하루라도 안 보면 못 견딜 정도여서 늘 붙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2학년 여름방학 때 제가 돌을 부추겨서 해수욕장에 놀러 갔습니다. 거기서 배두와 같은 반인 다른 친구를 만나 넷이서 함께 놀다가, 유난히 키 작은 그 친구가 불어난 밀물 때문에 허우적거리며 “배두야~!”하고 부르자 그를 구하러 갔던 배두는 함께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잠깐 한눈파는 사이에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서로 움켜잡고 물속으로 잠기는 장면을 목격한 저는 파출소와 경비정으로 뛰어다니며 온갖 애를 썼지만, 결국 하루가 지나서야 사체를 찾았습니다. 부모님들이 모두 오셔서 사태를 수습했고, 사체를 보지도 못하게 한 부모님들 때문에 남은 우리 둘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앉아서 하루 종일 펑펑 울었습니다.

죽음이 그렇게 허무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광대한 우주 공간 어느 곳에도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버린 허무함’은 ‘삶과 죽음’에 대한 엄청난 의구심으로 대체되었고, 대학입시도 실패하여 재수를 하면서 철학과를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입학 후, ‘불교학생회’에 들어가 3천 배를 해야 하는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계를 받아 불심을 다지던 차에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8월 퇴역별 아래 흙먼지 풀풀

날리는 연병장에서 훈련을 받던 중, 포악한 조교가 실수한 훈련병을 너무도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피가 터지고, 먼지투성으로 쓰러진 그의 눈이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는 그 순간, 그의 눈빛을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느님, 도대체 어찌하여 인간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는 처절한 절망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에서 넓은 유리판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흩어지면서 하늘 멀리 사라져 버리는 것과 동시에 “불성이 인성이라고? 저런 짐승 같은 조교의 인성에서 불성은 무슨 불성~”이라는 생각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바로 다음 실내 교육 시간, 저는 덩치 큰 동료의 등 뒤에 숨어 앉아, 50분 동안 내내 소리로 내지 못하고 눈물 콧물범벅이 되어 울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한없이 불쌍한 연민’의 오열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 슬픔은 하느님이 제게 주신 ‘사랑의 슬픔’이었고 ‘또 다른 부르심’이었습니다. 기쁨을 품고 있는 사랑은 반드시 슬픔도 간직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사랑을 잃었을 때 우리는 더욱 슬프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많이 기뻐하셨지만, 눈물도 많이 흘리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나눌 것이 없다면, 함께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밥이 될 수 있다”라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정진민 세례자 요한 | 가톨릭상담심리사

교리상식



교리상식

장례미사 때는 평화의 인사를 안 하나요?

장례미사 때 평화의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한국의 정서로는 가족이나 지인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나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 이들에게는 거부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현대에는, 오히려 이 시간에 평화의 인사를 나눔으로써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클.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말 발행